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달러/원 월간 전망)-원화 강세 모멘텀 둔화..美 대선 관련 변동성 경계령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주치의인 손 콘리 박사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월터리드 국립 군 병원에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켄 세데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69.5	0.2%	-1.1%	-3.5%	유로	1.1713	0.7%	4.5%	-2.3%
100엔 대비	1,107.2	0.4%	-4.1%	-4.4%	엔	105.33	0.3%	3.1%	0.9%
유로 대비	1,366.2	0.0%	-5.3%	-1.3%	위안	6.8149	0.1%	2.2%	-1.3%
위안 대비	171.72	0.2%	-3.5%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682.81	1.9%	-3.0%	22.3%
코스피	2,327.89	2.2%	5.9%	7.7%	나스닥	11,075.02	1.5%	23.4%	35.2%
코스닥	848.15	4.9%	26.6%	-0.9%	S&P500	3,348.44	1.5%	3.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57.18	1.8%	0.8%	15.8%
국고채 3Y	0.846%	-0.9bp	-51.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07%	-1.8bp	-37.3bp	-40.4bp	미국채 2Y	0.133%	0.2bp	-142.8bp	-93.7bp
국고채10Y	1.430%	0.6bp	-25.3bp	-26.5bp	미국채 10Y	0.704%	4.8bp	-120.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7.05	-8.0%	-39.3%	34.5%	한국 5Y	25.4bp	-1.7bp	4.3bp	-17.0bp
금(현물)	1,898.70	2.1%	25.2%	18.3%	일본 5Y	15.8bp	-0.5bp	-2.0bp	-4.0bp
TR상품지수	2,440.94	-0.8%	-1.8%	4.8%	중국 5Y	46.4bp	-2.9bp	15.7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0월 5일(월)>

- 통계청, 8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기재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14:00)

<6일(화)>

-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7일(수)>

- 한은, 9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국회 국정감사(10:00)
- 한은, 2분기중 자금순환(잠정)(12:00)

<8일(목)>

- 한은, 8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국회 국정감사(10:00)

<9일(금)>

- 공휴일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0월 5일(월)>

- 유로존, 9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17:00)
- 유로존, 10월 섹터지수(17:30)
- 유로존, 8월 소매판매(18:00)
- 미국, 9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22:45)
- 미국, 9월 고용동향(23:00)
- 미국, 9월 ISM 비제조업 PMI(23:00)
- 중국 휴장

<6일(화)>

-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전미실물경제협회 화상연례회의 연설 (23:30)
- 중국 휴장

<7일(수)>

- 일본, 9월 외환보유고(08:50)
- 일본, 8월 경기동행지수(14:00)
- 일본, 8월 경기선행지수(14: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중국 휴장

<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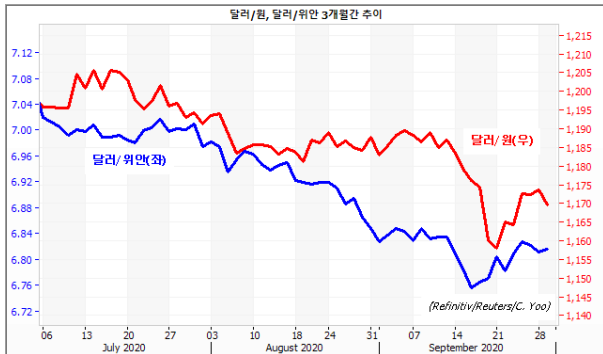
-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15-16일 회의록 공개 (03:00)
- 미국, 8월 소비자신용(04:00)
- 일본, 8월 경상수지 NSA(08:5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중국, 9월 외환보유고
- 중국 휴장

<9일(금)>

- 일본, 8월 가계지출(08:30)
- 중국, 9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10:45)
- 미국, 8월 도매재고(23:00)
- 미국, 8월 도매 판매(23:00)
- 대만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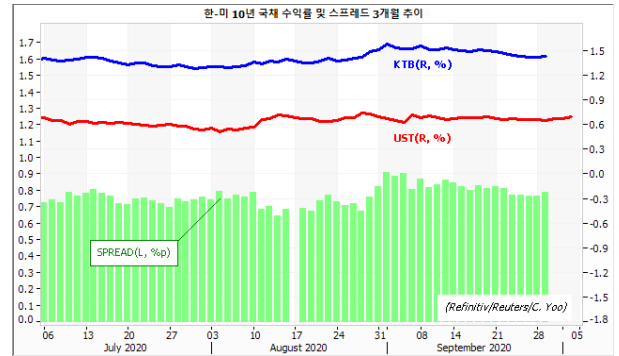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추석 연휴 기간 예상치 못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60-1185 원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내 긴장감이 대폭 커진 가운데 이번 주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건강 관련 소식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긴장감을 때때로 표출할 가능성은 커졌다.
-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 여부와 속도에 따라 시장 내에서는 대선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증시와 달러 행보를 좇으며 1160 원대 지지력을 더욱 다질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헤드라인에 따라 환율은 틈틈이 상승 압력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 다만 그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의 부양책 협상 여부는 주목되는 변수다. 또한 주 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 연설과 함께 지난 9월 연준 의사록 공개 역시 챙겨봐야 할 재료다.
- 국내에서 발표되는 주요 지표로는 9월 소비자물가, 9월 외환보유액, 8월 국제수지,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드스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의 재정 부양책 관련 동향과 대내외 위험자산 가격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새롭게 시작된 국고채 입찰 사이클과 맞물리며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글로벌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 소식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재정 부양안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 정가의 재정 부양책 합의 가능성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할 경우 대내외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국내 채권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고채 입찰과 함께 수급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10월에 입찰 물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10월과 11월 균등발행이었다.
- 예상대로 10월 초에 시장금리가 정점을 찍은 후 월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은 6일에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7일에 9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8일에는 8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달러/원 월간 전망)-원화 강세 모멘텀 둔화..美 대선 관련 변동성 경계령

서울 (로이터) 박예나 · 이지훈 기자 - 원화 강세를 견인했던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완화되면서 10월 달러/원 환율은 하단을 다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국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환율은 1158-1189원(평균)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약 달러 모멘텀을 주도해온 유로화 강세가 주춤하고,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최근 글로벌 달러는 하단을 밟고 올라서는 분위기다.

또한 달러/원 급락을 촉발한 위안화 강세도 중국 국채의 FTSE 러셀 WGBI 편입 확정 이후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 및 그에 앞선 공방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환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호주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은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재료로 꼽혔다.

다만 10월은 시기적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른 외환 수급 개선과 대기 매물 등을 감안하면 환율의 상승 탄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가 정리한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 19 사태가 변수지만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달러/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내성은 생긴 듯하다. 미국 대선 관련 마찰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재료가 시장 모멘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으

로 본다. 중국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달러/원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레인지 하단을 탐색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85

▲ 서창조 과장 (우리은행)

"코로나 19 2차 유행 우려, 미국 정치 리스크 증대에 따른 추가 부양책 합의 지연 가능성, 노딜 브렉시트 불안감, 터키 및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달러/원 상승을 예상한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선제적 대응 노력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지속,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및 WGBI 지수 편입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연동 등으로 달러/원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90

▲ 조영복 차장 (중국공상은행)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대선 토론에서의 경제 정책 이슈와 여론조사, 투표 결과까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9월 위안화 강세와 글로벌 달러 약세에 가파르게 진행된 원화 강세는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채의 WGBI 편입으로 위안화 강세도 예상되지만, 최근 위안화 픽싱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달러/원은 거주자 예금 및 네고가 해소되지 않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200

▲ 고규연 차장 (하나은행)

"두 달여간 글로벌 약세 조정 속에서 달러/원은 1157원대 저점을 본 후 다시 레벨을 회복 중이다. 10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이슈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지만 TV 토론회 등 본격적인 유세가 남은 만큼 지지율 추이에 관심이 모일 것이다. 각국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금리에 대한 관심은 다소 멀어질 것이다. 달러/원은 월 초 추가 상승을 노리며 전고점인 1180원 초반까지 상승할 여지는 있다. 다만, 1180원대 중반에 60일

이평선이 위치해 있고 고정 매도 물량도 상당 대기 할 것으로 보이고 계절적으로도 역외들이 북을 공격적으로 운용할 시기는 아닌 만큼 환율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90

▲ 이응주 차장 (DGB 대구은행)

"9월 달러/원 하락은 그간 축적된 원화 강세 재료가 일시에 반영된 성격이 강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10월 중 추가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가격 및 기간 조정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환율의 추가 하락 모멘텀은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로 강세에 대한 ECB의 불편함이 전달된 가운데 'flight to quality'의 강 달러에 기대는 게 심리적으로 편한 상황이다. 이에 달러/원은 9월의 기습적인 하락세가 진정된 가운데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며 1170~80 원대 중반에서 주된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68-1188

▲ 김동욱 팀장 (KB 국민은행)

"미국의 저금리 기초 장기화 전망과 국내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 증가 등은 9월에 이어 달러/원의 하방 요인이다. 다만 유럽 등에서 코로나 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졌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등이 위험 회피와 달러/원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월 환율은 9월과 유사한 흐름이 예상되면서 달러/원은 1170 원대에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거래 범위: 1155-1195

▲ 고부석 과장 (KDB 산업은행)

"10월에는 달러 지지력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9월 동안 약 달러 분위기를 타고 1150 원대를 보기도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력이 확인되는 것 같아 달러 지수를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노딜 브렉시트 등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코로나 19 확산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관련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

한다면 1190 원대까지도 상향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90

▲ 전승지 연구원 (삼성선물)

"미국 대선 정국 진입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속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중국의 WGBI 이벤트 확인 후 둔화될 위안화 강세, 9월 급락에 상당히 소진된 달러화 대기 매물 등에 달러/원 지지력 유지와 변동성 확대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계절적으로 9~10월 수출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9월 다소 여유로워진 수급 여건은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등 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90

▲ 문홍철 파트장 (DB 금융투자)

"유로화 대비 달러화 약세는 마무리되면서 약 달러 흐름은 큰 전기를 마련했고, 달러는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최근 위안화 강세에 따른 달러/원 하락은 큰 흐름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현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이 향후 유로존이나 중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달러 흐름이 마무리되는 것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달러에 대비한 자국 통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인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는 타이밍의 문제로 장기적인 달러 강세 전환이 대세 흐름이라는 의견을 견지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190

▲ 김유미 연구원 (키움증권)

"10월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달러 강세와 위험 회피 성향이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거래 범위: 1160-1185

▲ 오창섭 연구원 (현대차증권)

"북반구 가을 진입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심화 가능성 및 단기간 환율 급락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환율 하락세 완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 증시 조정으로 인해 안전 통화인 달러 수요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 달러 약세 지속에 따른 피로감으로 환율 하락세가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적으로 원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 위안화 및 호주 달러도 중국 WGBI 편입 이슈 마무리 및 호주 마이너스 금리 정책 논의 등으로 통화 강세 요인이 약화된 모습이다."

예상 거래 범위: 1150-1175

▲ 권아민 연구원 (NH 투자증권)

"11월 미국 대선은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환율 시장의 변동성 확대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대선과 맞물린 불확실성,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은 달러/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유럽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더 심화되면서 유럽의 심리 지표 부진,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 견조한 수출 증가율을 비롯해 실물 지표 개선세를 보이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펀더멘털의 더딘 회복세는 유의미한 달러/원 하락 속도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상 거래 범위: 1165-1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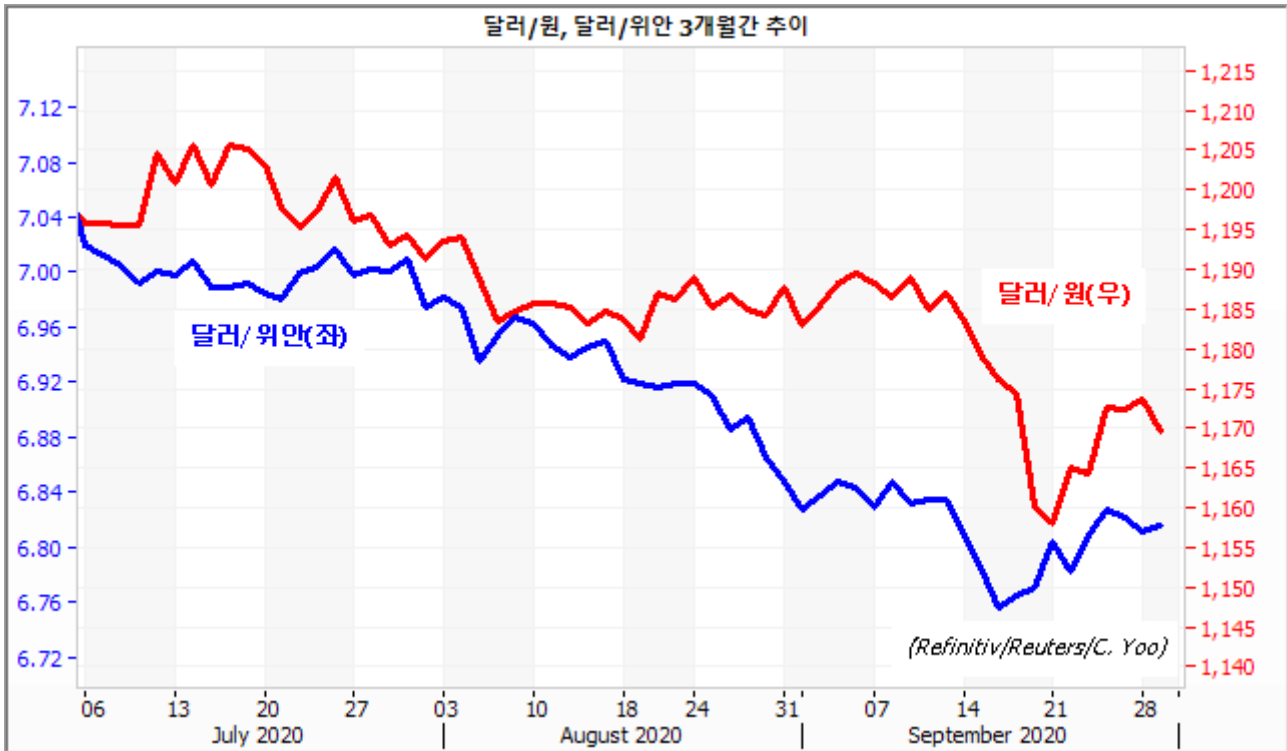
기관명	설문 참가자	예상 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160	1185
우리은행	서창조 과장	1160	1190
중국공상은행	조영복 차장	1150	1200
하나은행	고규연 차장	1160	1190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168	1188
KB국민은행	김동욱 팀장	1155	1195
KDB산업은행	고부석 과장	1160	1190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1160	119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150	119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160	1185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150	1175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165	1185
평균		1158	1189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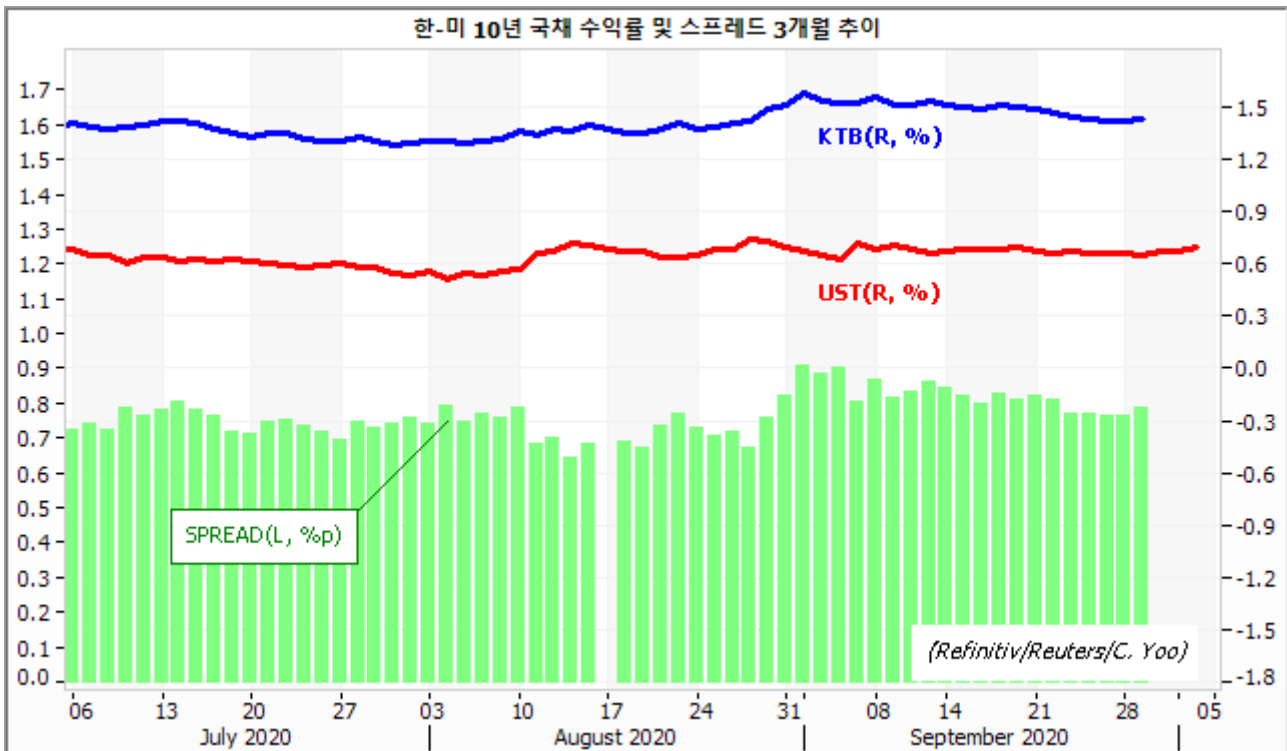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기관명	설문 참가자	예상 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160	1185
우리은행	서창조 과장	1160	1190
중국공상은행	조영복 차장	1150	1200
하나은행	고규연 차장	1160	1190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168	1188
KB국민은행	김동욱 팀장	1155	1195
KDB산업은행	고부석 과장	1160	1190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1160	119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150	119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160	1185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150	1175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165	1185
평균		1158	1189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